

□ 러시아 소비동향

○ Korea Premium: 극동러시아로 수입되어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형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파프리카는 경쟁제품인 네덜란드 및 이스라엘 제품보다도 높은 kg 당 479루블에 판매되고 있음

○ 이는 한국산 제품이라는 좋은 이미지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이스라엘 및 네덜란드 제품에 비해 높은 신선도 유지 등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중국산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

○ 고급 파프리카 시장의 경우, 한국, 네덜란드, 이스라엘 제품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, 이스라엘 제품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, 한국산 제품의 경우 높은 신선도 유지, 우수한 품질로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

○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파프리카 색상은 빨강, 노랑, 녹색 순으로 일부 매장에서는 중국산 파프리카를 색별로 빨간색은 76.5루블, 노란색은 75, 초록색은 65루블로 차별해서 판매하기도 함